

중년층의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의사 분석*

Middle-aged People's Attitudes about Housing in Their Later Life and Their Intention to Move into Senior Congregate Housing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석사과정 서은미**

교수 홍형옥***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Division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Master Course : Seo, Eun-Mee

Professor : Hong, Hyung-O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nalyze the attitudes of people in their 50s about housing problems, and, 2) to study their intention to move into senior congregate housing.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03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people using a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listed 'friends'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ir later life. Next, in general, they preferred to live in mainstream family housing. Respondents thought "family and government" had a responsibility to solve senior citizens' housing problem. Second, a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showed an intention to eventually move into a senior congregate housing. However, the group who did not intend to live in senior congregate housing had a higher income and greater property assets. The appropriate time for the move to senior congregate housing was keyed to a desire to avoid loneliness. On the other hand,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urrent housing was the primary reason given for not wanting to move to senior congregate housing. In conclusion, senior congregate housing should be developed as a model for the middle class and might be successful when combined with a high quality social and health program.

▲주요어(Key Words) :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 중년층(middle aged), 입주의사(intention to mov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7.1%에 불과했던 고령인구가 2020년

도에는 13.2%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세계초유의 속도인 22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서혜경, 1998). 또한 장기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온 선진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그 준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은 국가전체 예산의 0.37%(보건복지부, 2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선진국이 수십 년 혹은 100여년에 걸쳐 준비해온 고령 사회를 20여년 만에 맞이하게 되고 독신 인구의 증가와 취업여성의 증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고,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서은미 (E-mail : kissbsej@hanmail.net)

*** 교신저자 : 홍형옥 (E-mail : hong1215@khu.ac.kr)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고령 인구의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홍형욱·지은영, 2002). 이렇듯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이므로 건강한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4년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주택의 보급에 급급했던 정책방향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 2020년까지의 청사진인 제 4차 국토 종합계획 주거복지부문에 서는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노인주거부문에 방향모색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고령 사회의 중심이 될 예비 노인층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따른 입주시기와 입주이유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 예비노인층의 노후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차후 노인이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자립적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이 모여살 수 있도록 지어진 소규모 집합주택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이 곳에 입주할 의사를 물어본 후, 입주/비입주의 선택에 따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예비 노인층의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1-1. 노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1-2. 노후에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 1-3. 노인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연구문제 2>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 여부에 따른 집단의 특성과 입주시기와 입주이유는 어떠한가?

- 2-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하려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 2-2. 노인공동생활주택으로 입주할 의사가 있는 집단의 입주시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 2-3.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 집단의 비입주 이유는 무엇인가?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이유를 분석하고자 배포한 설문지 중, 총 회수된 설문지는 500부이며 부실설문지 2부를 제외한 498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중년층으로, 예비 노인층인 5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인구비례 확률추출법(PPS : Proportionate Probability Sampling)으로, 구체적으로는 3단층화 체계적 무작위추출법(3-Stage 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window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평균, 백분율, 빈도분석, χ^2 검증 등을 이용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노인공동생활주택'이란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공간이 있고, 공유공간과 관리인이 있어 사교·여가프로그램, 생활지원서비스 및 관리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유형이다. 이러한 주택은 접근성 기준(accessibility standard)에 맞게 지어지며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미국의 노인공동주택(congregate housing), 일본의 실버하우징에 준하는 개념(홍형욱, 1999)이다.

노후를 대비하여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노인주택들의 대안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최성재(1998)가 일상생활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머무르며 생활할 수 있는 대안적 주택으로 보호형 노인집합주택(sheltered congregate housing)을 들었던 것을 시초로 몇몇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 또한 홍형욱(1999)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관리인을 두고 공유공간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집합주택으로서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을 일반주택의 대안적 주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거모델인 노인공동생활주택과 유사한 모델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이라는 용어는 노인생활지원주택(홍형욱, 1999; 홍형욱, 지은영, 2002), 노인공동주택(박근형, 양우현, 1996; 서기영, 이진혁, 2002), 노인전용주택(이기훈, 2004; 김미련, 2001; 김은미, 2003; 노현진, 2001)이라는 용어가 유사하게 사용되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고, 노인주택·노인주거(홍형욱, 2004; 광인숙, 1998; 신영숙, 1998, 강순주 외, 1992, 이연숙 외, 1999; 강병근, 1999; 정무용, 정기남, 1996; 전명숙, 강순주, 1992; 최보선, 강병근, 1996; 김상범, 강병근; 1999)라는 명칭은 노인들이 사는 주택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단위주택을 지칭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주택에 관한 맥락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노인주택이란 노인의 노화현상을 고려하여 특별히 계획·설계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인들은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주거대안이 다양(광인숙, 1998; 신영숙, 1998)하였다. 또한 현재 노인계획주거단지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상 규정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비노인복지주택은

그 공급이 없어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의료복지시설과 함께 복합형 실버타운으로 고급화되어 공급되고 있다. 노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곳은 운영기법상 양로시설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나마 2003년 현재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3)라고 했다(홍형욱 외 2인, 2004).

본 연구와 같은 주거모델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형욱, 지은영, 2004)를 보면, 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지역 모두 50대 초반의 중년층이 높은 입주의사를 보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많았으나, 서울·경기도의 경우는 대졸이상의 사람들도(39%) 관심을 보였다. 직업면에서는 네 지역 모두 전문·기술·경영·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부산의 경우 200만원이하의 소득, 서울·수도권, 광주, 대전의 경우 201~400만원의 소득군이 관심을 보였다. 자산은 네 지역 모두 3억 이하인 경우 입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광주, 대전의 경우 서울·수도권에 비해 그 비율이 72%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주관적 경제적 능력은 네 지역 모두 4인 경우에 관심이 높았으나 3인 경우에도 관심을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에 있어 입주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징을 보면, 학력과 자산이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수도권은 고졸과 대졸 집단, 소득은 201~400만원과 400만원이상인 집단, 자산은 3억 이하와 5억 이상의 집단으로 양분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광주와 대전은 201~400만원, 이에 비해 부산은 소득이 낮은 200만원이하의 고졸 집단, 자산은 3억 이하인 집단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형욱 외, 2004b)(홍형욱, 2001).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한 개념인 노인생활지원주택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주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관리인이 있고 노인들이 소규모로 모여 사는 노인생활지원주택과 같은 곳을 선호하는 비율이 13.2%로서 이들이 노인생활지원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노인생활지원주택에 입주하였을 때의 장점으로는 시설이 편리할 것이다와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단점으로는 가족간의 경조사나 접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연구 결과, 노인생활지원주택은 임의 분양이 가능한 20세대 이하로, 공유공간과 시설, 관리인이 공급되어야 하며,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들이 건강할 때는 요구에 따라서, 허약할 때는 하루에 한 끼 이상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개인공간은 온돌의 원룸형부터 간단한 부엌+화장실+침실이 있는 1침실형까지 범위가 넓어야 할 것임을 제

안하고 있다(홍형욱, 2001). 이러한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의 입주의사를 묻는 조사에서, 노인들끼리 소규모로 모여 사는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계층에서 반드시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적당한 것이 있으면 입주하고 싶다고 한 비율이 상층 70%, 중층 56%, 하층 6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계층이 선호하는 노인주택의 위치와 유형, 비용에 대해 적정수준을 맞추어 노인생활지원주택을 개발한다면 그 수요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홍형욱, 지은영, 2004a).

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의 지역별 견해를 비교한 연구(홍형욱, 지은영, 2004)에서는 대전지역의 중집단이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들은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빈도로 살펴본 결과, 서울·수도권은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상·중·하 집단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상집단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전의 경우 중집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마다 노인공동생활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장·단점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결과, 장점은 네 지역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 없이 '고독감 해소'를 꼽은 것으로 노후의 3苦(빈곤, 질병, 고독) 중 하나인 외로움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입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공유공간 확보, 철저한 관리인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단점으로는 네 지역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 없이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하면 '자녀, 친척 만나기가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염려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입지가 도심 혹은 도시근교에 자리 잡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셔틀버스 운행과 가족 참여 자원봉사제도 운영, 가족실·게스트룸 운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역별 비교의 결과 서울·수도권 지역의 상집단은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노후에 혼자 되어도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하집단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기대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가 되더라도 현재의 주거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호와 입주의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요구와 대처는 매우 급속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수도권 중년층의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노후를 대비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에 있어서, 이 곳에 입주하려는 의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여 앞으로 빠르게 다가올 노인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결과 해석과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 평균은 53.9세였고, 남자가 40.2%, 여자가 59.8%로 여성응답자가 조금 더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45.5%였다. 자녀유무는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6.8%였고, 월 평균 가계소득은 366.1만원으로, 올 해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4~6월) 가계수지 동향에 따른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인 2,971,00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은 평균이 4억 7800만원으로 나타났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

n=498

특성	구분	f(%)
나이 (평균:53.9세)	50-54세	301(60.4)
	55-59세	197(39.6)
	계	498(100.0)
성별	남자	200(40.2)
	여자	298(59.8)
	계	498(100.0)
학력	고졸이하	268(54.5)
	대졸이상	224(45.5)
	계	492(100.0)
자녀유무	유	480(96.8)
	무	16(3.2)
	계	496(100.0)
직업	전업주부	214(46.4)
	장치,기계	55(11.9)
	판매,서비스	146(31.7)
	전문가,의원,고위	46(10.0)
	계	461(100.0)
소득 (평균: 366.1만원)	200만원미만	111(22.9)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31(27.0)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97(20.0)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4(7.0)
	500만원이상	112(23.1)
계	485(100.0)	
자산 (평균: 4억7800만원)	3억미만	192(42.24)
	3억이상-4억미만	77(16.9)
	4억이상-5억미만	32(7.0)
	5억이상-6억미만	47(10.3)
	6억이상	107(23.5)
계	455(100.0)	
주관적 경제상태	상층	126(25.4)
	중층	261(52.5)
	하층	110(22.1)
	계	497(100.0)
건강상태	좋음	265(53.2)
	보통	176(35.3)
	나쁨	57(11.4)
	계	498(100.0)
주관적 사회계층	상층	100(20.2)
	중층	304(61.5)
	하층	90(18.2)
	계	494(100.0)

고, 3억미만의 그룹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전업 주부와 은퇴, 무직인 사람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판매, 서비스, 사무 종사자, 기술공 및 전문가 그룹이 응답자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경제수준과 사회계층 수준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는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53.2%로 가장 많았다(<표 1>).

2) 조사대상자의 주거 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 특성을 살펴보면, 본인 소유가 83.9%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형태가 48.6%, 아파트가 33.9%로 나타났다. 평균 주택 규모는 35.6평으로 나타났으며, 30평 이상 40평 미만의 응답자가 43.0%를 차지하였다(<표 2>).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 특성

n=498

주거특성	구분	f(%)
주택 소유형태	본인소유	416(83.9)
	전·월세	70(14.1)
	자녀소유	10(2.0)
	계	496(100.0)
주택유형	단독·다가구	242(48.6)
	아파트	169(33.9)
	연립·다세대	87(17.5)
	계	498(100.0)
주택규모 (평균:35.6평)	20평미만	42(17.7)
	20평이상-30평미만	111(39.3)
	30평이상-40평미만	169(43.0)
	40평이상-50평미만	83(16.9)
	50평이상	86(17.5)
계	491(100.0)	

2.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

1) 노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조사대상자에게 노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단순관찰비율로는 '친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료혜택', '일자리', '친지·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노후의 삶에서 친구, 의료혜택, 일자리, 친지·친척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를 각 선택을 한 사람들의 특성을 χ^2 검증 결과 유의하지 않더라도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대비율보다 관찰비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표 3>).

(1)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우선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친구'라고 응답한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현재 직업이 전업주부이거나 은퇴·무직의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건강이 좋으며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중층인 집단이 기대비율보다 관찰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은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인 사람들의 관찰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높았으며, 자산은 4억이상~6억미만, 거주평수는 35평이상~50평미만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

한 결과로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의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에 있어, 공유공간 활용도를 높여, 친구지간의 사교성을 높일 수 있는 사교프로그램, 모임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료혜택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노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혜택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업주부나 은퇴, 무직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면서 주관적 경제 상태는 상층이고, 소득은 500만원이상, 자산은 6억이상,

<표 3>노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n=498

		친구	의료혜택	일자리	친지·친척	전체	χ^2
성별	남	58(36.7)	45(40.9)	50(50.0)	29(33.7)	182(40.1)	6.324
	여	100(63.3)	65(59.1)	50(50.0)	57(66.3)	272(59.9)	
	계	158(100.0)	110(100.0)	100(100.0)	86(100.0)	454(100.0)	
나이 (평균:53.9세)	50-54세	96(60.8)	66(60.0)	53(53.0)	62(72.1)	227(61.0)	7.190
	55-59세	62(39.2)	44(40.0)	47(47.0)	24(27.9)	177(39.0)	
	계	158(100.0)	110(100.0)	100(100.0)	86(100.0)	454(100.0)	
	평균	53.8세	54.0세	54.8세	53.1세		
직업	전업주부	80(53.0)	49(50.5)	25(27.2)	42(53.8)	196(46.9)	30.435***
	장차,기계	12(7.6)	11(11.3)	17(18.5)	10(12.8)	50(12.0)	
	판매,서비스	40(26.5)	29(29.9)	45(48.9)	18(23.1)	132(31.6)	
	전문가,의원,고위	19(12.6)	8(8.2)	5(5.4)	8(10.3)	40(9.6)	
	계	151(100.0)	97(100.0)	92(100.0)	78(100.0)	418(100.0)	
주관적 경제상태	상층	41(25.9)	32(29.4)	16(16.0)	23(26.7)	112(24.7)	12.552
	중층	87(55.1)	56(51.4)	50(50.0)	47(54.7)	240(53.0)	
	하층	30(19.0)	21(19.3)	34(34.0)	16(18.6)	101(22.3)	
	계	158(100.0)	109(100.0)	100(100.0)	86(100.0)	453(100.0)	
건강상태	좋음	98(62.0)	50(45.5)	45(45.0)	45(52.3)	238(52.4)	15.523*
	보통	42(26.6)	45(40.9)	47(47.0)	28(32.6)	162(35.7)	
	나쁨	18(11.4)	15(13.6)	8(8.0)	13(15.1)	54(11.9)	
	계	158(100.0)	110(100.0)	100(100.0)	86(100.0)	454(100.0)	
주관적 사회계층	상층	32(20.6)	30(27.3)	14(14.0)	17(20.0)	93(20.7)	8.969
	중층	99(63.9)	62(56.4)	67(67.0)	47(55.3)	275(61.1)	
	하층	24(15.5)	18(16.4)	19(19.0)	21(24.7)	82(18.2)	
	계	155(100.0)	110(100.0)	100(100.0)	85(100.0)	450(100.0)	
소득 (평균:366.1만원)	200만원미만	24(15.9)	17(15.9)	37(37.0)	24(28.9)	102(23.1)	36.401***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42(27.8)	28(26.2)	31(31.0)	19(22.9)	120(27.2)	
	300만원이상-400만원이상	38(25.2)	20(18.7)	18(18.0)	10(12.0)	86(19.5)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9(6.0)	8(7.5)	6(6.0)	7(1.6)	30(6.8)	
	500만원이상	38(25.2)	34(31.8)	8(8.0)	23(27.7)	103(23.4)	
	계	151(100.0)	107(100.0)	100(100.0)	83(100.0)	441(100.0)	
자산 (평균:4억7800만원)	평균	349.3만원	489.2만원	262.9만원	373.4만원		
	3억미만	51(35.9)	40(39.7)	59(62.8)	28(37.8)	178(43.2)	30.195**
	3억이상-4억미만	27(19.0)	16(15.7)	15(16.0)	16(21.6)	74(18.0)	
	4억이상-5억미만	10(7.0)	3(2.9)	3(3.2)	7(9.5)	23(5.6)	
	5억이상-6억미만	18(12.7)	8(7.8)	5(1.2)	7(9.5)	38(9.2)	
	6억이상	36(25.4)	35(34.3)	12(2.9)	16(21.6)	99(24.0)	
계	142(100.0)	102(100.0)	94(100.0)	74(100.0)	412(100.0)		
주택규모 (평균:35.6평)	평균	5억5600만	5억0300만	3억2700만	4억7400만		
	25평 미만	20(12.8)	18(16.4)	26(26.0)	17(21.0)	81(18.1)	18.331*
	25평 이상-35평 미만	60(38.5)	41(37.3)	46(46.0)	28(34.6)	175(39.1)	
	35평 이상-50평 미만	44(28.2)	28(25.5)	21(21.0)	18(22.2)	111(24.8)	
	50평 이상	32(20.5)	23(20.9)	7(7.0)	18(22.2)	80(17.9)	
	계	156(100.0)	110(100.0)	100(100.0)	81(100.0)	447(100.0)	
평균	37.0평	36.9평	30.7평	36.4평			

*p<.05, **p<.01, ***p<.001

주택규모는 50평이상의 고소득층의 사람들의 관찰비율이 기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의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은 노후의 삶에서 건강을 가장 중요시함을 알 수 있고, 또한 향후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개발함에 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노인공동생활주택 내의 공유공간에도 의료와 관련된 공간을 설치하고, 활용도를 높이면서 건강에 직접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일자리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노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건강이 보통이면서, 주관적 경제 상태가 중층, 판매, 서비스 등의 직업과 소득은 300만원미만, 3억미만의 자산을 가진 35평미만의 주택에의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가 되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하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노후에는 더 빨라진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노인들이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정부의 노인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정보제공과 동시에,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에 있어 공유공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주차장 면적 기준을 완화해주는 정책,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친지·친척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친지와 친척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50대 초반의 여성이 많았고, 건강이 나쁘고, 주관적 사회계층은 하층이고, 소득이 200만원미만이거나 500만원이상, 3억이상~5억미만의 자산에 주택 규모는 25평미만이거나 50평이상에 사는 사람들의 관찰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층보다 상층과 하층의 여성 거주자들이 많을 경우에 거주자 참여 프로그램운영, 혹은 게스트룸 설치 등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카이검증 결과, 노후의 삶에서의 필요한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변수는 직업, 소득, 자산, 건강상태와 주택 규모로서 이 것은 경제적, 직업적 능력과 건강상태가 노후의 삶의 가치결정에 가장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노후에 원하는 주거형태

조사대상이 노후에 살기를 원하는 주거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교차분석 해 보았더니, 주관적 경제상태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들이 많으나 조사대상자에게 노후에 살기를 원하는 주거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단순관찰비율으로는 '노인을 위해 설계한 가족이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일반주택', '개조한 주택', 마지막으로 '노인을 위해 설계한 노인 전용 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을 선택

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을 관찰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경향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4>).

(1) 노인설계+가족거주 주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노후에 살기를 원하는 주거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노인을 위한 설계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었다. 이 주택은 노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업주부 및 은퇴, 무직의, 건강상태가 좋고 소득은 200만원미만, 자산은 3억미만의 25평미만에 거주하는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비교적 소득과 자산이 적은 집단은 현재 주택보다는 노인을 위주로 설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정부에서 지역사회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중하소득층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공동생활주택 내에 가족공간을 계획하여, 거주자들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2) 일반주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노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같은 일반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여자보다 남자 관찰비율이 기대비율보다 더 높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중층이면서, 소득은 500만원이상, 자산은 3억이상~4억미만, 주택 규모가 25평이상~35평미만에 사는 사람들이 기대비율보다 관찰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을 비롯한 노인주택에 관련된 주택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불편하더라도 현재 주택에 살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념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3) 개조한 주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주택을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조한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초반의 남성이 많았으며, 건강상태가 좋고, 소득은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5평이상~35평미만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

(4) 노인설계+노인전용주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

노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지어진 노인전용주택으로 노인끼리만 모여 사는 주택을 선호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건강은 보통, 직업은 판매, 서비스 분야가 더 많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상층, 소득은 500만원이상, 자산도 6억 이상이었으며, 주택 규모도 50평이상의 상층이었다. 이것은 소득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층 일수록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즐기면서 건강과 생활까지 독립적인 노인전용 주택을 선

<표 4>노후에 원하는 주거형태

n=498

		노인설계+ 가족거주	일반주택	개조한 주택	노인설계+ 노인전용	전체	χ^2
성별	남	60(37.5)	59(43.4)	50(41.3)	22(35.5)	191(39.9)	1.679
	여	100(62.5)	77(56.6)	71(58.7)	40(64.5)	288(60.1)	
	계	160(100.0)	136(100.0)	121(100.0)	62(100.0)	479(100.0)	
나이	50-54세	98(61.3)	80(58.8)	80(66.1)	34(54.8)	292(61.0)	2.594
	55-59세	62(38.8)	56(41.2)	41(33.9)	28(45.2)	187(39.0)	
	계	160(100.0)	136(100.0)	121(100.0)	62(100.0)	479(100.0)	
	평균	53.9세	54.1세	53.6세	54.1세	53.9세	
직업	전업주부, 은퇴, 무직	74(50.3)	57(45.2)	50(44.2)	26(45.6)	207(46.7)	6.455
	장치, 기계	19(12.9)	12(9.5)	13(11.5)	7(12.3)	51(11.5)	
	판매, 서비스	39(26.5)	43(34.1)	39(34.5)	22(38.6)	143(32.3)	
	전문가, 의원, 교위	15(10.2)	14(11.1)	11(9.7)	2(3.5)	42(9.5)	
	계	147(100.0)	126(100.0)	113(100.0)	57(100.0)	443(100.0)	
주관적 경제상태	상층	40(25.0)	29(21.3)	32(26.4)	20(32.3)	121(25.3)	13.741*
	중층	73(45.6)	86(63.2)	63(52.1)	31(50.0)	253(52.8)	
	하층	47(29.4)	21(15.4)	26(21.5)	11(17.7)	105(21.9)	
	계	160(100.0)	136(100.0)	121(100.0)	62(100.0)	479(100.0)	
건강상태	좋음	88(55.0)	67(49.3)	67(55.4)	31(50.0)	253(52.8)	3.068
	보통	52(32.5)	51(37.5)	44(36.4)	24(38.7)	171(35.7)	
	나쁨	20(12.5)	18(13.2)	10(8.3)	7(11.3)	55(11.5)	
	계	160(100.0)	136(100.0)	121(100.0)	62(100.0)	479(100.0)	
	평균	303.2만원	388.1만원	339.2만원	533.1만원		
소득 (평균:366.1만원)	200만원미만	42(27.3)	28(20.7)	22(19.1)	12(11.5)	104(22.3)	10.128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41(26.6)	29(21.5)	38(33.0)	18(29.0)	126(27.0)	
	300만원이상-400만원이상	30(19.5)	30(22.2)	23(20.0)	12(19.4)	95(20.4)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2(7.8)	10(7.4)	8(1.7)	3(4.8)	33(7.1)	
	500만원이상	29(18.8)	38(28.1)	24(20.9)	17(27.4)	108(23.2)	
	계	154(100.0)	135(100.0)	115(100.0)	62(100.0)	466(100.0)	
	평균	303.2만원	388.1만원	339.2만원	533.1만원		
자산 (평균:4억7800만원)	3억미만	67(46.9)	47(37.0)	46(42.2)	26(44.1)	186(42.5)	5.286
	3억이상-4억미만	22(15.4)	25(19.7)	19(17.4)	7(11.9)	73(16.7)	
	4억이상-5억미만	8(5.6)	10(7.9)	9(8.3)	4(6.8)	31(7.1)	
	5억이상-6억미만	12(8.4)	14(11.0)	12(11.0)	6(10.2)	44(10.0)	
	6억이상	34(23.8)	31(24.4)	23(21.1)	16(27.1)	104(23.7)	
	계	143(100.0)	127(100.0)	109(100.0)	59(100.0)	438(100.0)	
	평균	4억6300만	4억9700만	4억1900만	5억8700만		
주택소유	본인소유	134(83.8)	114(84.4)	103(85.1)	49(79.0)	400(83.7)	5.260
	진·월세	20(12.5)	20(14.8)	16(13.2)	12(19.4)	68(14.2)	
	자녀소유	6(3.8)	1(0.7)	2(1.7)	1(1.6)	10(2.1)	
	계	160(100.0)	135(100.0)	121(100.0)	62(100.0)	478(100.0)	
주택규모 (평균:35.6평)	25평 미만	37(23.6)	17(12.8)	20(16.7)	10(16.1)	84(17.8)	8.752
	25평 이상-35평 미만	54(34.4)	56(42.1)	51(42.5)	24(38.7)	185(39.2)	
	35평 이상-50평 미만	42(26.8)	32(24.1)	30(25.0)	15(24.2)	119(25.2)	
	50평 이상	24(15.3)	28(21.1)	19(15.8)	13(21.0)	84(17.8)	
	계	157(100.0)	133(100.0)	120(100.0)	62(100.0)	472(100.0)	
평균	34.4평	37.0평	34.5평	37.8평			

*p<.05, **p<.01, ***p<.001

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우리나라 노인주거문제 해결의 책임소재

조사대상에게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단순관찰빈도로는 '가족과 국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가', '스스로 해결', '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하여 χ^2 검증을 한 결과, 자산과 나이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표 5>).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기대비율과 관찰비율의 비교를 통해 경향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더 많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하층, 소득은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소득은 3억미만, 주택 소유에서는 전월세 및 자녀 소유가 많았고, 주택규모가 25평형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국가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여자가 더 많았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중층, 자산은 3억미만이면서 역시 전월세나 자녀소유의

<표 5> 우리나라 노인주거문제의 해결책임 소재

n=498

		가족+국가	국가	스스로해결	가족	전체	χ^2
성별	남	84(36.8)	36(34.3)	47(55.3)	31(43.7)	198(40.5)	10.964**
	여	144(63.2)	69(65.7)	38(44.7)	40(56.3)	291(59.5)	
	계	228(100.0)	105(100.0)	85(100.0)	71(100.0)	489(100.0)	
나이 (평균:53.9세)	50-54세	137(60.1)	64(61.0)	51(60.0)	45(63.4)	297(60.7)	0.270
	55-59세	91(39.9)	41(39.0)	34(40.0)	26(36.6)	192(39.3)	
	계	228(100.0)	105(100.0)	85(100.0)	71(100.0)	489(100.0)	
주관적 경제상태	상층	48(21.1)	24(22.9)	29(34.1)	25(35.2)	123(25.2)	15.520**
	중층	118(52.0)	60(57.1)	44(51.8)	36(50.7)	258(52.9)	
	하층	61(26.9)	24(22.9)	12(14.1)	10(14.1)	107(21.9)	
주관적 사회계층	상층	52(22.9)	16(15.4)	26(31.0)	15(21.4)	99(20.4)	15.327**
	중층	133(58.6)	67(64.4)	50(59.5)	47(67.1)	297(61.2)	
	하층	42(18.5)	21(20.2)	8(9.5)	8(11.4)	89(18.4)	
소득 (평균:366.1만원)	200만원미만	50(22.3)	25(25.5)	11(13.1)	21(30.0)	107(22.5)	22.798*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71(31.7)	28(28.6)	15(17.9)	15(21.4)	129(27.1)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43(19.2)	19(19.4)	19(22.6)	14(20.0)	95(20.0)	
자산 (평균: 4억7800만원)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0(4.5)	7(7.1)	10(11.9)	7(10.0)	34(7.1)	19.352
	500만원이상	50(22.3)	19(19.4)	29(34.5)	13(18.6)	111(23.3)	
	계	224(100.0)	98(100.0)	84(100.0)	70(100.0)	476(100.0)	
주택소유	3억미만	100(46.3)	44(48.9)	19(25.0)	28(43.1)	191(42.7)	26.217***
	3억이상-4억미만	37(17.1)	12(13.3)	15(19.7)	9(13.8)	73(16.3)	
	4억이상-5억미만	13(6.0)	9(10.0)	6(7.9)	3(4.6)	31(6.9)	
주택규모 (평균:35.6평)	5억이상-6억미만	16(7.4)	9(10.0)	12(15.8)	10(15.4)	47(10.5)	24.704**
	6억이상	50(23.1)	16(3.6)	24(5.4)	15(23.1)	105(23.5)	
	계	216(100.0)	90(100.0)	76(100.0)	65(100.0)	447(100.0)	
주택규모 (평균:35.6평)	25평 미만	45(19.7)	22(21.6)	5(6.0)	13(18.6)	85(17.6)	24.704**
	25평 이상-35평 미만	98(43.0)	42(41.2)	25(30.1)	24(34.3)	189(39.1)	
	35평 이상-50평 미만	54(23.7)	19(18.6)	29(34.9)	21(30.0)	123(25.5)	
주택규모 (평균:35.6평)	50평 이상	31(13.6)	19(18.6)	24(28.9)	12(17.1)	86(17.8)	24.704**
	계	228(100.0)	102(100.0)	83(100.0)	70(100.0)	483(100.0)	
	평균	34.0평	34.6평	54.1평	35.5평		

*p<.05, **p<.01, ***p<.001

주택과 25평 미만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남자가 더 많았고, 주관적으로 경제 상태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며, 소득은 500만원이상, 자산은 3억이상~5억미만의 전월세 및 자녀 소유의 35평 이상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관찰비율의 높았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대 초반의 남자가 더 많았으며, 주관적 경제 상태는 상층이고, 소득은 500만원이상, 자산은 5억이상~6억미만, 주택 규모는 35평이상~50평미만의 중대규모 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다. 소득이 많은 상층이 스스로, 혹은 가족지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하층일수록 국가에서 잘 짜인 노인주택정책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고 노인공동생활주

택의 수요대상도 이들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주 의사

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 의사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의 특성 비교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이 곳에 입주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 조사해 보았더니, 주택규모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로 보았을 때,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2배정도 숫적인 차이를 보였다.

입주 의사가 없는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전업주부 및 은퇴 무직이며, 건강상태가 좋고, 주

관적 사회계층이 상층이고, 소득이 500만원이상이며, 50평이상의 아파트 거주자의 관찰비율이 기대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은 50-54세의 판매 서비스직이 많았고, 건강은 보통이고, 소득은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주관적 사회계층이 중층이며, 25평이상~35평이상의 아파트에 거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로 볼 때, 경제적 능력이 많은 집단보다는 경제능력이 중층인 집단이 노후를 모여서, 좀 더 경제적으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6>).

<표 6> 입주의사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n=498

		없는집단	있는집단	전체	χ^2
성별	남	63(38.7)	136(41.2)	199(40.4)	0.297
	여	100(61.3)	194(58.8)	294(59.6)	
	계	163(100.0)	330(100.0)	493(100.0)	
나이	50-54세	90(55.2)	209(63.3)	299(60.6)	3.013
	55-59세	73(44.8)	121(36.7)	194(39.4)	
	계	163(100.0)	330(100.0)	493(100.0)	
	평균	54.2세	53.8세	53.9세	
학력	고졸이하	85(52.1)	180(55.6)	265(54.4)	0.508
	대졸이상	78(47.9)	144(44.4)	222(45.6)	
	계	163(100.0)	324(100.0)	487(100.0)	
직업	주부,무직	75(50.3)	137(44.5)	212(46.4)	3.391
	장치,기계	19(12.8)	35(11.4)	54(11.8)	
	판매,서비스	39(26.2)	107(34.7)	146(31.9)	
	전문,고위직	16(10.7)	29(9.4)	45(9.8)	
	계	149(100.0)	308(100.0)	457(100.0)	
주관적 경제 상태	상층	45(27.6)	80(24.3)	125(25.4)	0.719
	중층	82(50.3)	177(53.8)	259(52.6)	
	하층	36(22.1)	72(21.9)	108(22.0)	
	계	163(100.0)	329(100.0)	492(100.0)	
건강 상태	좋음	93(57.1)	170(51.5)	263(53.3)	3.966
	보통	48(29.4)	126(38.2)	174(35.3)	
	나쁨	22(13.5)	34(10.3)	56(11.4)	
	계	163(100.0)	330(100.0)	493(100.0)	
주관적 사회계층	상층	41(25.6)	59(17.9)	100(20.4)	4.204
	중층	90(56.3)	211(64.1)	301(61.6)	
	하층	29(17.8)	59(17.9)	88(18.0)	
	계	160(100.0)	329(100.0)	489(100.0)	
소득 단위: 만원	200미만	36(2.9)	73(22.6)	109(22.7)	7.225
	200-300	33(21.0)	98(30.3)	131(27.3)	
	300-400	30(19.1)	66(20.4)	96(20.0)	
	400-500	13(8.3)	20(6.2)	33(6.9)	
	500이상	45(28.7)	66(20.4)	111(23.1)	
	계	157(100.0)	323(100.0)	480(100.0)	
자산	3억미만	56(40.6)	135(43.3)	191(42.4)	1.541
	3억-4억	20(14.5)	54(17.3)	74(16.4)	
	4억-5억	10(7.2)	21(6.7)	31(6.9)	
	5억-6억	17(12.3)	30(9.6)	47(10.4)	
	6억이상	35(25.4)	72(23.1)	107(23.8)	
	계	138(100.0)	312(100.0)	450(100.0)	
주택소유 형태	본인소유	138(85.2)	273(83.0)	411(83.7)	0.904
	전·월세	22(13.6)	48(14.6)	70(14.3)	
	자녀소유	2(1.2)	8(2.4)	10(2.0)	
	계	162(100.0)	329(100.0)	491(100.0)	
	평균	4억9900만	4억7000만	4억7800만	

<표 6> 계 속

		없는집단	있는집단	전체	χ^2
주택 유형	단독·다가구	73(44.8)	166(50.3)	239(48.5)	1.384
	아파트	60(36.8)	107(32.4)	167(33.9)	
	연립·다세대	30(18.4)	57(17.3)	87(17.6)	
	계	163(100.0)	330(100.0)	493(100.0)	
주택 규모 단위: 평	25평 미만	25(15.5)	61(18.7)	86(17.7)	8.243*
	25평-35평	55(34.2)	137(42.0)	192(39.4)	
	35평-50평	42(26.1)	81(28.8)	123(25.3)	
	50평 이상	39(24.2)	47(14.4)	86(17.7)	
	계	161(100.0)	326(100.0)	487(100.0)	
	평균	38.0평	34.4평	35.6평	

*p<.05

2)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의 입주시기 분석

<표 7> 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의 이사시기 분석

n=498

변인	항목	빈도(%)
이사시기	자녀 결혼 후	66(20.1)
	도움이 필요할 때	144(43.8)
	배우자 사망 후	43(13.1)
	외로울 때	75(22.8)
	기타	1(3)
	합계	329(100.0)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를 하겠다고 답한 집단을 중심으로 입주시기를 분석한 결과, 도움이 필요할 때가 43.8%로 가장 많았고, 외로울 때, 자녀 결혼 후, 배우자 사망 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이 되었다라든가 능력이 될 때까지는 자립적으로 노후를 보내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는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녀가 결혼을 한 후이나 배우자가 사별한 후처럼 외로움이 커질 즈음엔 입주를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홍형욱(1999)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이 영국의 보호주택 2형이면서 서비스는 2.5형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표7>).

3)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의 입주이유 분석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를 하겠다고 대답한 집단을 중심으로 입주이유를 분석한 결과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아서,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어서,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아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제일 응답이 많았던 외롭지 않아서라는 이유는 노후를 맞이하는 예비 노인들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의 외로움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동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되며 관리자의 자질과 공유공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질이 노인 공동생활주택 도입과 정착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표8>).

<표 8>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의 입주이유 분석
n=498

변인	항목	빈도(%)
입주이유	편리할 것 같아	57(17.3)
	외롭지 않을 것 같아	110(33.3)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87(26.4)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아	18(5.5)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어서	48(14.5)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9(2.7)
	기타	1(3)
	합계	330(100.0)

4)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의사가 없는 집단의 비입주이유 분석

노인공동생활주택에 입주할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집단을 중심으로 입주할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표9>), 현재 주택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노인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양로원과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호의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노후 주택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노후 문제의 해결자로 주목되었던 국가가 도입초기부터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하여 정책 사각지대가 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건설, 금융, 세제, 관리인에 대한 정교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들의 반대 때문인가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노인전용주택이 부유층을 위한 실버타운 등의 이미지를 가진 노인주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 상류층만을 위한 노인주택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보급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9>입주의사가 없는 집단의 비입주이유 분석
n=498

변인	항목	빈도(%)
비입주이유	현재 주택에 만족	75(48.1)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23(14.7)
	자녀들의 반대	22(14.1)
	노인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29(18.6)
	기타	7(4.5)
	합계	156(100.0)

IV.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숫적으로는 노후에 원하는 거주형태에 대해서 노인을 위주로 설계된 주택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따른 집단의 특성과 입주시기와 입주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입주할 의사가 없는 집단과 의사가 있는 집단을 비교하였다. 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이 훨씬 수직으로 우세하였는데 입주의사가 없는 집단이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적 능력이 더 상위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의사가 있는 집단에게 이사시기를 질문한 결과, 도움이 필요할 때 입주하겠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반면, 입주의사가 없는 집단에게 이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현재 주택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노인공동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아직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노후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한 스스로를 책임지고, 노인공동생활주택에는 도움이 필요할 때 들어가려는 생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가족이 좀 더 효율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하며,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야 노후를 위한 효과적인 주거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사교와 건강에 관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공유공간과 이를 주관할 수 있는 관리인이 노인공동생활주택의 도입과 정착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접수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9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1월 24일

【참고 문헌】

강병근(199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주거유형. **대한건축학회**, 15(10), 3~14.
 강순주·전명석·조현경(1992). 노인주거에 관한 중년층의 주요

- 구. **대한가정학회**, 30(4), 121-136.
- 곽인숙(1998). 노인의 취업여부와 건강 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6(11), 43-59.
- 김미련(2001).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김상범·강병근(1999). 반의존형 노인주거의 계획에 관한 연구-각 공간별 소요실 구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19(1), 81~86.
- 김은미(2003). 도심 노인전용주거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안연구. 이화여대 과학기술대학원 석사논문.
- 노현진(2001). 우리나라 노인전용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명지대대학원 석사논문.
- 박근형·양우현(1996).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2(1), 13~21.
- 보건복지부(2003).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 서기영·이진혁(2002).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모형 개발연구. **대한건축학회**, 18(8), 111~120.
- 서혜경(1998). 고령화 사회의 의의와 의미. **대한건축학회지-건축**, 42(2), 8-13.
-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105-120.
- 이기훈(2004). 노인전용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논문.
- 이연숙·이숙영·박정아·변혜령(1999). 노년기 상황에 따른 노인 주거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회**, 19(2), 147~158.
- 전명숙·강순주(1992). 노인주거계획에 관한 이론적 접근-노인주거유형의 외국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8(6), 51~61.
- 정무용·정기남(1996). 노인주거 관련 연구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2(11), 51~61.
- 최보선·강병근(1996). 사례분석을 통한 노인주거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6(2), 59~64.
- 최성재(1998). 고령화 사회의 노인시설 유형과 전망. **건축**, 42(2), 14-21.
- 홍형욱(1999). 한국의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주거의 대안적 모색-노인생활지원주택의 개념 도입과 제도적 탐색-. **한국주택학회지**, 7(2), 75-91.
- 홍형욱(200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택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47-166.
- 홍형욱·지은영(2002). 사회계층별 노인생활지원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83-95.
- 홍형욱(2004). 노인주택계획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9.
- 홍형욱·유병선·전경화(2004). 노인계획주거 대안선택 집단에 따른 특성 비교-일·여가·서비스 제공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5(1), 129-140.
- 홍형욱·전경화·유병선(2004). 프랭클린(Franklin)의 사회구성주의 모델 관점으로 본 한국의 노인주택맥락. **한국가정관리학회**, 22(1), 103-114.
- 홍형욱·지은영(2004a).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지역별 비교-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7), 별책본, 1~17.
- 홍형욱·지은영(2004b).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지역별 견해 비교-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1), 163-174.